
스웨덴 극우 정당의 사회적 기초

신 광 영*

이 논문은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자료(VALU)를 이용하여 2000년대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세를 확장하고 있는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 SD)의 사회적 토대를 분석한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20세기 내내 사회민주당이 해계모니를 유지하며 동시에 상당히 안정된 정당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 기성 정당들이 외면하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지지를 급속히 확대하여 의회 내 제3당이 되었다. 이 논문은 스웨덴 민주당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통합과 같은 스웨덴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는 변화를 강조하는 ‘병리적 사회현상으로서의 극우 민족주의’와 공급차원의 ‘정당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출구조사 분석은 이전과 다르게 연령, 직업과 가입 노동조합 형태 등에 따라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기존 정당체제에 대한 불만 등이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90년대 초 의회에 잠시 진출한 극우 정당인 신민주당(Ny Demokrati) 현상과 같은 일시적인 이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과 동시에 스웨덴 민주당이 단일 이슈 정당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에서 점차 급진주의를 약화시켜 의회 내 주류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음을 함의한다.

주제어: 극우 민족주의, 스웨덴 민주당, 출구조사자료(VALU), 유럽통합, 스웨덴

1. 문제제기

현대 사회에서 견고한 정당의 사회적 지지 기반은 안정된 정당 정치의 중요한 조건이다. 스웨덴의 안정된 사회민주주의 체제 실험도 안정된 정당체제와 사회민주당의 오랜 집권으로 가능했다. 적어도 20세기 말까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는 다당제 하에서 사민당의 헤게모니가 유지될 수 있는 정당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06년 이전까지 스웨덴 사민당은 좌파 블록과 우파 블록 양대 블록 체제에서 적어도 좌파 블록의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수연정 집권이 시작된 2006년부터 보수연정이 총선에서 패배한 2014년 사이에 스웨덴의 정당체제는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기존의 진보 블록(사회민주당, 녹색당과 좌파당)과 보수 블록(보수당, 중앙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정당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사민당이 다시 정권 탈환에 성공하였지만,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민당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성 정당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보다 새로운 급진적인 정당들이 총선에서 지지를 확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다당제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스웨덴 민주당(SD)의 대두나 여성주의 정당을 내세우는 페미니스트 정당(FI)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증가는 스웨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스웨덴 정당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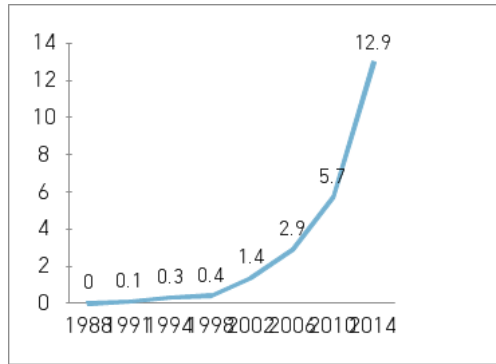
특히,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스웨덴 민주당(은 2006년 2.6% 지지에서 2010년 5.7%로 지지율을 2배 이상 높였고, 또 다시 2014년 12.9%의 지지를 받아서 2배 이상의 지지율 증가를 보여주었다(<그림 1> 참조).¹⁾ 지난 8년 동안 5배 정도의 지지율 증가를 보이면서,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 정당체계에 충격을 주었다. 더구나 2014년 9월 총선 직전,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모든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이 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스웨덴 민주당과 일체 협력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민주당은 2014년 9월 총선에서 12.9%의 지지를 얻어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 사민당과 보수당에 이어서 제3당으로 부상한 스웨덴 민주당은 기존의 군소정당을 제치고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스웨덴 정치 변화의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을 의회 내에서 고립된 상태이지만,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들과 민주당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서, 극우 정당의 의회 내 영향력을 더 키질 것으로 기대된다.³⁾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스웨덴 정치의 우경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는 특별한 사회집단에 한정된 ‘국지적 지지’ 현상인가? 이 논문은 지난 3차례의 스웨덴 총선 직후에 이루어진 출구조사 자료

-
- 1) 에테보리 SOM Institute에서 조사하는 사회동향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민주당을 가장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6년 2.1%에서 2013년 8.5%로 나타났다. Oscarsson and Bergström(2014: 28).
 - 2) 새로운 극우주의 정치세력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 지고 있다. 극우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우익 극단주의(right-wing extremism), 극우 급진주의(far-right radicalism), 반이민주의(anti-immigration) 등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이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는 Mudde(2007: 11-31)를 볼 것.
 - 3) 2015년 5월 5일 스웨덴 주요 신문인 Dagens Nyheter는 4월 말에 조사한 스웨덴 성인 가운데 46%의 스웨덴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들이 민주당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협력 반대 41%에 비해서 협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기존 보수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독교 민주당 지지자들의 60%, 보수당 지지자들의 55%, 중앙당 지지자들의 50%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 내에서 스웨덴 민주당과 협력하는 것에 지지를 보냈다. 이것은 기성 보수당과 극우 민족주의 정당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Local(2015).

를 분석하여 스웨덴 보수당과 극우 정당의 사회적 기초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총선에서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 분석을 통해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토대를 밝히고, 극우 민족주의가 구조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치적 국면에서 나타난 현상인지를 규명한다. 결론적으로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는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스웨덴 극우 정당의 대두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와 유럽화로 인한 희생자들의 심리적 반응으로 극우주의의 대두를 설명하는 수요차원 설명과 기존 정당들의 한계와 정치적 기회 구조를 강조하는 공급차원의 설명이 결합이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림 1> 스웨덴 민주당의 총선 지지율



2. 스웨덴 극우주의와 스웨덴 민주당

스웨덴 극우주의 전통은 대단히 오래되었다. 1924년 최초의 파시스트 정당인 스웨덴 민족사회주의 자유 연맹(Nationalsozialistiska Frihetsförbundet)이 창당되면서 스웨덴 파시스트 운동이 가시화되었고, 이후 다양하게 명칭을 달리하면서 정당이나 이념 운동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Berggren, 2002). 정치적으로는 1991년부터 1994년 잠시 극우주의를 내세우

는 ‘신민주당’(Ny Demokrati)⁴⁾이 의회에 진출하였으나,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 정당은 2006년까지 의회에서 안정된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또 다른 극우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1988년에 창당된 ‘스웨덴 민주당’도 인종주의와 이전에 형성된 네오나치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었다 (Erlingsson et al, 2014: 198). 최근 스웨덴 민주당이 덴마크에서 성공한 극우 정당을 벤치마킹하여 스웨덴 내에서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일찍이 스웨덴 극우 급진주의 연구자인 뤼드그렌(Rydgren, 2002)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스웨덴에서 극우 급진주의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노동계급의 높은 사민당 충성도, 낮은 경제적 균열, 낮은 이민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당들 간의 낮은 정책적 수렴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외국인 혐오감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정치적 틈새가 있다면, 극우 급진주의가 정치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스웨덴에서는 특히 이민 문제가 오랜 동안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뤼드그렌(Rydgren, 2010)은 이러한 점을 덴마크에 비해서 스웨덴에서 극우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양국에서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정당에 대한 일체감도 낮아졌지만, 스웨덴에서는 아직까지 민주주의 제도 일반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비제도권 정당의 입지가 커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경제침체로 사회경제적 이슈가 중심적인 정치적 이슈가 된 반면, 덴마크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슈보다 이민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극우 민족주의가 정치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Rydgren, 2010: 61-62).

그러나 최근 들어서 스웨덴에서도 극우 시각의 미디어가 크게 확산되면서, 이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2004년 6천 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신규 이민자는 2009년 102,280명으로 급증했다(Fredrik, 2012: 114). 이들 대부분

4) 신민주당은 1990년 12월 1일에 창당되어, 1991년 총선에서 6.7%의 지지를 얻어 의회에 진출하였다. 1994년 총선에서 지지도는 1.4%에 그쳐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지방 의회에서도 의석이 줄어서 2000년 2월 해산하였다. Rydgren(2006: 29-86).

이 스톡홀름과 말뫼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지를 이루면서, 이민자 거주지역이 분리되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의 문제는 노동력 공급과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스웨덴의 고유한 문화를 약화시키고 또한 법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민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민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된다. 대표적으로 경제침체는 이민자들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복지를 둘러싼 이해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 극우 극단주의의 발달에 관한 수요차원에서의 논의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 지지의 증가가 경제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 대표적으로 잭맨과 볼퍼트(Jackman and Volpert, 1996)는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극우 극단주의 지지가 높아지며, 의회 진출 득표율 하한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극우 극단주의 정당의 의회진출이 많아지고, 의회에 진출한 당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양당제보다 다당제에서 극우 극단주의 지지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희생자들인 노동자들과 빈곤층이 극우 극단주의에 호응하는 양상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해석도 제시되었다(Oskarson and Demker, 2013; Rydgren and Ruth, 2013). 1980년대 극우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를 지지했던 것과는 다르게, 1990년대 극우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그것은 유럽통합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에도 반대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세계화의 패배자라고 불릴 수 있는 빈곤 노동자, 실업자와 빈곤층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현상이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의 배경이다(Rydgren, 2013: 4).

위와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극우 민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머드(Cas Mudde, 2010)는 극우 민족주의의 대두를 수요차원의 문제(사회와 유권자)보다는 공급차원(정당의 선거 동원 전략)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극단주의(extremism)와 급진주의(radicalism)를 구분하면서,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급진주의는 자유주의적(liberal) 요소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대체로 병리적인 심리나 의식에 따른 정치적 태도나 활동을 중심으로 극우 민중주의에 접근하는 것은 세계화, 탈산업화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리적인 심리를 갖게 되어 극우 민중주의가 등장한다고 본다(Beck, 1992; Kitschelt and McGann, 1995; Swank and Betz 2003). 머드는 경험적으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부 특정한 조건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유럽인들 가운데 다수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점에서, 병리적 심리로 극우주의의 국가 간 차이나 국가 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Mudde 2010: 8-14). 대신에 그는 공급차원의 설명인 정당 차원의 문제까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여러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적어도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정당 차원의 요인들(이슈 만들기, 현실에 대한 인식들 바꾸기 등)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접근을 “병리적 정상성(pathological normalcy)”이라고 불렀다.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로 되면서, 극우주의의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Mudde 2010: 15-16).

지금까지의 극우주의 대두에 관한 논의들은 스웨덴을 포함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변동에 의해서 촉발되는 극우주의의 강화 추세와 스웨덴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요소들에 의한 극우주의 강화 추세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 내에서 극우주의가 강화되는 구조적인 변화들을 강조하는 경우는 주로 수요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이슈 만들기과 정당들의 담론 전략 등을 강조하는 경우는 주로 공급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탈산업화와 세계화와 같은 거시적인 추세가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시적인 변화라면, 스웨덴 내의 독특한 정당 체제와 상황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극우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스웨덴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극우주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에 속한다는 점에서 스웨덴 내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⁵⁾ 덴마크나 노르웨

이와도 다르게 극우주의 전통은 있었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적 차원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다. 적어도 선거에서 나타나는 극우주의 정당의 대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의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의 정치적 변화와 정당의 전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3. 자료 및 분석

3.1 자료

스웨덴 민주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총선 직후에 실시된 출구조사 자료(VALU)를 분석한다. 총선 출구조사는 1991년부터 스웨덴 텔레비전 방송국,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과 스톡홀름 왕립기술대학이 주관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총선 출구조사는 스톡홀름 왕립기술대학 대신 스톡홀름 대학이 참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세 차례의 출구조사는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사로서 2006년 11,871명, 2010년 11,435명, 2014년 12,47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총선 출구조사 자료는 당시 총선과 직전 총선에서 지지한 정당만을 묻기 때문에, 과거의 지지정당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당 선택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전 총선에서의 지지 정당과 총선 당시의 지지정당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성향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 민주당이 등장하는 2000년대 세 차례의 총선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용한다.

5) 스웨덴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과 더불어 극우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책이 가장 발달된 국가이다(Ramalingam, 2014).

<표 1>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2014년 기준).

변수	평균, %
연령	46.76
성	
남성	5,907
여성	6,375
직업	
화이트칼라 노동자	34.35%
화이트칼라 관리자	12.73%
화이트칼라 경영자	5.69%
블루칼라 노동자	31.30%
블루칼라 관리자	3.91%
농민	0.42%
자영업자	3.76%
고용주	4.05%
비경활	3.79%
노조	
비노조	47.32%
LO	21.69%
TCO	16.01%
SACO	16.98%
경제적 지위	
취업	11,688
실업	795
정치의식 ⁶⁾	

- 6)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난민/이민이 정당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었나?”(Q. 28), “복지가 정당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었나?”(Q. 36), “정치인을 신뢰하는가?”(Q. 7), “주관적인 정치적 이념은?”(Q. 9).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제외하고 모두 리커트 척도인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절대 아니다(1), 아니다(2), 중립(3), 그렇다(4), 대단히 그렇다(5)로 주어졌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높다(1), 높은 편이다(2), 낮은 편이다(3), 대단히 낮다(4)로 답하도록 하였고, 정치적 이념은

이민	2.1301
복지	4.2896
정치신뢰	2.2872
정치이념	2.8561
N	12,483

3.2 분석 결과

그렇다면, 스웨덴 유권자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표 1>은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지지정당 교차표이다. 두 시기 총선에 참여한 정당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차례 총선에서의 지지 정당 교차표가 제시되었고, 주 대각선은 각 유권자들의 지지정당 충성도를 보여준다. 즉, 두 번의 총선에서 동일한 정당을 지지한 경우이다. 먼저, 보수블록인 B-블록(*bourgeoisie bloc*)의 경우, 2002년 총선에서 보수블록을 지지한 유권자의 91.87%가 다시 2006년 총선에서 보수블록을 지지하였다. 반면, 2002년 진보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S-블록(*socialist bloc*) 지지자들 가운데 79.05%만이 2006년에 다시 진보블록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2006년도 총선에서 보수블록 지지자의 충성도가 진보블록 지지자들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002년 진보블록을 지지한 유권자 가운데 15.41%가 2006년 보수블록을 지지한 반면, 2002년에 보수블록을 지지한 유권자의 5.22%만이 진보블록을 지지하였다. 이것은 진보블록에서 이탈자가 많았던 반면, 보수블록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왜 2006년 총선에서 보수블록이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명백한 좌익(1), 좌익(2), 중도(3), 우익(4)과 명백한 우익(5)으로 구분되었다.

<표 1>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에서의 정당지지 교차표

2002년 2006년	B-블록 1	S-블록 2	FI 3	민주당 4	June List 5	기타블록 6	기타 7	전체
B-블록 1	4,417 91.87	251 5.22	6 0.12	54 1.12	17 0.35	34 0.71	29 0.60	4,808 100.00
S-블록 2	851 15.41	4,365 79.05	91 1.65	73 1.32	22 0.40	66 1.20	54 0.98	5,522 100.00
기타 3	47 29.56	30 18.87	1 0.63	49 30.82	6 3.77	23 14.47	3 1.89	159 100.00
투표 안함 4	252 39.44	260 40.69	11 1.72	30 4.69	4 0.63	24 3.76	58 9.08	639 100.00
투표권 없었음 5	304 40.92	339 45.63	7 0.94	16 2.15	1 0.13	25 3.36	51 6.86	743 100.00
전체	5,871 49.46	5,245 44.18	116 0.98	222 1.87	50 0.42	172 1.45	195 1.64	11,871 100.00

참고: B-블록은 보수당, 중앙당, 자유당과 기민당 포함하면, S-블록은 사민당, 녹색당과 좌파당을 포함한다. FI는 여성주의 정당을 지칭하며, June List는 반유립연합 정당을 지칭한다.

<표 2>는 2010년 총선과 2014년 총선에서의 정당지지 교차표이다.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총선에서 보수블록이 승리하여 스웨덴 역사상 최초로 8년 동안 보수정권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보수블록이 선거에서 패배하였고, <표 2>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보수블록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79.39%가 2014년 선거에서 또 다시 보수블록을 지지했다. 그리고 2010년 보수블록 지지자 중 12.40%가 2014년 진보블록으로 지지를 바꿨고 또 6.24%가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으로 지지를 바꿨다. 반면, 2010년 진보블록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또 다시 2014년 진보블록을 지지한 경우는 82.51%로 보수블록보다 충성도가 더 높았다. 진보블록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로 지지정당이 바뀐 경우는 3.39%에 불과하였고, 대신에 페미니스트 정당(FI) 지지가 9.21%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2014년에도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은 78.27%로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201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2014년 총선에서 진보블록으

로 지지를 바꾼 비율이 14.63%나 되었다.

<표 2> 2010년과 2014년 총선에서의 정당지지 교차표

	B-블록	S-블록	민주당	FI	기타	불참	합계
B-블록	4,148 79.37	648 12.40	326 6.24	66 1.26	20 0.38	18 0.34	5,226 100.00
S-블록	218 4.27	4,212 82.51	173 3.39	470 9.21	24 0.47	8 0.16	5,105 100.00
민주당	22 4.88	66 14.63	353 78.27	3 0.67	5 1.11	2 0.44	451 100.00
FI	3 3.33	21 23.33	2 2.22	62 68.89	2 2.22	0 0.00	90 100.00
기타	11 12.36	25 28.09	8 8.99	8 8.99	37 41.57	0 0.00	89 100.00
불참	223 32.55	305 44.53	61 8.91	38 5.55	19 2.77	39 5.69	685 100.00
투표권 무	277 33.49	343 41.48	64 7.74	76 9.19	18 2.18	49 5.93	827 100.00
합계	4,902 39.30	5,620 45.06	987 7.91	723 5.80	125 1.00	116 0.93	12,473 100.00

참고: FI는 페미니스트 정당을 지칭한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하면,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정치적 속성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서 두드러진 것은 2014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지지자 규모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201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보수블록에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로 전체 민주당 지지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는 진보블록에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로 전체 민주당 지지자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총선에서 새롭게 투표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민주당 지지는 8% 내외로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넓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초반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는 매우 낮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들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3>은

스웨덴 민주당 지지자 구성분포를 보여준다. 2010년 총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권자는 <표 3>에서 나타난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단지 2010년 총선에서 20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비중이 다른 군소 정당들에 비해서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 총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선거에서 다른 한 가지는 2014년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 가운데 과거 사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비중이 내려간 반면, 보수당 지지자의 비율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전 선거에서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경우가 아닌 새롭게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2014년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분포가 정확하게 정치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스웨덴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웨덴에서 나타난 극우 민족주의의 대두는 특정한 사회 집단에 한정된 특이한 정치 현상이 아니라 좌우를 포괄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표 3> 2010년과 2014년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구성 분포

	2010년 총선	2014년 총선
직전 선거 지지 정당		
보수당	17.96	25.03
중앙당	1.77	1.62
자유당	4.43	4.05
기민당	2.00	2.33
사민당	17.52	14.10
좌파당	2.22	2.03
녹색당	2.44	1.32
민주당	30.16	35.76
페미니스트 당		.20
기타	2.86	.81

무응답	2.66	1.01
투표하지 않음	5.10	3.85
기억 못함		1.32
투표권 없었음	10.86	6.48

전체	100.00	100.00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권자들이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여기에서는 세 단계 분석을 통해서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층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스웨덴 민주당 지지층의 인구학적 특징을 분석한다. 그 다음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등 구조적 위치와 제도적 속성을 추가하여 스웨덴 민주당 지지의 결정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이나 이념적인 속성이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독립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스웨덴 민주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인하기 단계적 과정이다.

<표 4> 2006년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의 로짓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3.3107	-3.0542	-13.0135	-5.2558***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089*	-0.0049		-0.0066
여성(=1)	-0.4863***	-0.4822***		-0.4614**
직업				
블루칼라 노동자		-		-
화이트칼라 노동자		-.5216*		-.3409
화이트칼라 관리직		-.5232		-.3560
화이트칼라 경영직		-.8145		-.9184
블루칼라 관리직		.2206		-.0044
농민		-.8439		-.4328
자영업		-.4460		-.5872

고용주	.1686			-1.046
비경활	-.0154			-.3049
노조				
비노조원	-			-
LO	-.7545			-.7569
TCO	-.9475			-.8619
SACO	-.1829			-.5132
취업상태				
실업(=1)	.4516			.2210
정치의식				
이민			1.3580***	1.4450***
복지			-.1576*	-.1527
정치신뢰			-1.4493***	-1.4263***
이념			.3202***	.4161***
적합도	-1101.3566	-946.5224	-757.3929	-1832.1943

<표 5> 2014년 스웨덴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의 로짓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2.2909	-2.1659	-13.0135	-5.4895
인구학적 변수				
연령	.00172	.0079***		.0100***
여성(=1)	-.5675***	-.5556***		-.7040***
직업				
블루칼라 노동자		-		-
화이트칼라 노동자		-.6059***		-.5767***
화이트칼라 관리직		-.5724***		-.4692**
화이트칼라 경영직		-.6912***		-.6136**
블루칼라 관리직		.2394		.1473
농민		-.3832		.0851
자영업		-.6116**		-.8169**

고용주	-0.6170**	-0.7877**
비경활	-0.5376*	-0.4965
노조		
비노조원	-	-
LO	.0094	.3025*
TCO	-0.2694*	.0390
SACO	-0.7325***	-0.4797**
취업상태		
실업(=1)	.5107***	.4218**
정치인식		
이민		1.2170*** 1.2180***
복지		-0.0300 -0.0521
정치신뢰		-1.4535*** -1.3832***
이념		.5505*** .5901***
적합도(-log likelihood)	-3284.4513 -2945.2808	-2025.7304 -1832.1943

<표 4>와 <표 5>는 2006년과 2014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표 4>와 <표 5>의 모형 1은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인구학적 변수와 지지 정당 간의 단순한 관계를 반영한 모형이다. <표 4>와 <표 5>에서 인구학적 변수는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 많이 고려하였을 때, 2006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4년에는 유의미하게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4년에는 모형 1에서 모형 4까지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면 할수록, 연령과 성이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세대 간, 남녀 간 스웨덴 사민당 지지가 더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에는 연령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 차이가 없었으나, 2014년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민주당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간 민주당 지지 차이도 2006년보다 2014년에 더 커졌다. 2014년 총선에서 남성의 민주당 지지에 비해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는 2006년 총선보다 더 낮아졌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표 5>의 모형2와 모형3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총선에서는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를 더 많이 하였고, 농민도 블루칼라와 비슷한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 지지를 보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2006년에는 가입되어 있는 노조의 형태에 따라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달라지지 않았으나, 2014년 총선에서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블루칼라 노조인 LO 조합원들이 화이트칼라 노조인 TCO나 전문직 노조인 SACO 조합원들보다 스웨덴 민주당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패배자들(희생자들)이 극우 민족주의 정당 지지를 더 많이 보여준다는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과 비교하여도 LO 조합원들이 TCO나 SACO 조합원들에 비해서 스웨덴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⁷⁾ 2014년에는 <표 5>의 모형 2와 모형 4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자들도 취업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스웨덴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에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차이도 없었으나, 2014년에는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더 스웨덴 민주당 지지를 많이 했다.

<표 4>와 <표 5>의 모형 3은 정치의식과 스웨덴 민주당 지지와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독립변수인 정치의식과 종속변수인 스웨덴 민주당 지지와의 관계를 인과적인 선후로 본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정치의식 가운데, 복지에 대한 관심 정도는 스웨덴 민주당 지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민 문제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수록,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낮을수록,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복지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과 스웨덴 민주당 지지와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민 문제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

7) 이것은 LO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경우, TCO 조합원 범주의 계수는 -.2789였으며, SACO 조합원 범주의 계수는 -.7419였다. 비조합원은 통계적으로 LO 조합원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났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이념과 복지 인식 간의 상관관계도 높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민에 대한 태도 변수 대신에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를 모형에 넣으면, 복지의 중요성에 태도도 유의미하게 스웨덴 민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정치인식과 관련하여 이민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이민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스웨덴 언론의 보도와 같은 간접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이민자 폭동사건에 관한 보도는 직접 이민이나 이민자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식의 변화는 수요차원이지만, 사건을 다루는 정당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인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이민에 대한 태도를 순수하게 수요차원이나 공급차원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또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 주로 언론매체에 의해서 보도되는 정치와 정치인들에 관한 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 수요차원의 변수인가 공급차원의 변수인가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더구나 이들 태도들도 인구학적인 요인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6>와 <표 7>은 각각 정치인 신뢰와 정당 지지와의 관계 및 이민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정당 지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대안적인 정치인과 정당을 선호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시기는 보수 연정(B-블록)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정당 지지는 매우 뚜렷한 관계를 보여준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집권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신뢰의 수준이 대단히 낮은 유권자들 가운데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표 6>에서 정치 불신이 가장 심한 사람들 가운데 16.95%가 스웨덴 사민당을 지지하여, 정치 불신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 스

8)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복지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2407로 유의도 0.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좌우 이념(강한 좌(1)에서 강한 우(5))과 복지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0.2743으로 유의도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웨덴 사민당 지지비율 1.47%와 대단히 큰 차이를 보였다. 단적으로 2010년 총선에서 기존 정치 체제와 정당들에 대한 신뢰/불신이 상당히 강하게 정당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를 덜 하는 유권자들 가운데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뢰가 “매우 낮음” 유권자들 가운데 스웨덴 민주당 지지는 16.95%로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31.23%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음” 경우에도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7.43%에서 14.68%로 높아졌다. 즉, 기존 진보와 보수 정당들에 대한 지지는 낮아진 반면,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거의 2배 정도 높아졌다. 페미니스트당의 경우도 2010년에 비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유권자들에게서 크게 지지도가 높아졌다.

<표 6> 2010년과 2014년 총선에서 나타난 정치인 신뢰와 정당지지 교차표(%)

정치인 신뢰	B-블록	S-블록	민주당	페미니스트당	기타
매우 높음	65.06a	31.90	1.47	.33	.24
	60.02b	34.31	1.62	3.49	.57
높음	54.74	42.07	1.55	.51	1.09
	44.71	45.43	3.30	5.62	.94
낮음	29.78	56.93	7.43	1.38	3.33
	25.55	49.85	14.68	7.13	2.80
매우 낮음	20.13	46.90	16.95	1.27	7.45
	16.25	37.82	31.23	5.46	9.24
전체	48.42	44.73	3.97	.74	2.15
	39.42	45.05	7.84	5.80	1.89

참고: a는 2010년 수치를 의미하며, b는 2014년 수치를 의미한다.

<표 7> 2006-2014년 총선에서 나타난 이민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정당지지 교차표(%)

이민 문제의 중요성	B-블록	S-블록	민주당	페미니스트당	기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음	39.30a	48.01	1.74	1.74	9.20
	38.85b	37.53	2.87	8.61	12.14
	29.89c	52.45	5.16	7.34	5.16
거의 중요하지 않음	49.02	46.42	0.65	0.26	3.64
	51.19	33.20	0.53	3.04	12.04
	42.34	50.29	1.16	4.62	1.59
보통	52.63	42.77	0.24	0.94	3.42
	54.11	32.61	0.72	2.82	9.73
	46.24	46.50	1.80	3.31	2.14
중요함	52.98	43.13	0.45	1.09	2.35
	51.97	33.26	1.55	2.16	11.06
	46.52	44.13	3.00	4.56	1.61
매우 중요함	45.69	42.95	6.59	1.29	1.66
	40.88	34.55	12.23	2.59	3.48
	29.33	40.45	18.95	9.62	1.66

참고: a는 2006년, b는 2010년, c는 2014년을 의미하며, 기타는 지지정당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한다.

<표 7>은 “이민 문제가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정당 별로 구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민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가 높았다. 그리고 지난 3차례 총선을 거치면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민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이 2006년 6.59%, 2010년 12.23%, 2014년 18.95%로 크게 높아졌다.

스웨덴 이민자들의 유입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불안정으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들의 급격히 증가하였고, 중동 지역의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지역 이민자들도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민자들의 비율은 2000년 11%에서

2015년 현재 16%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스웨덴의 인구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2008년 이후 비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민이 75%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중동으로부터의 이민자가 25% 정도를 차지하여, 이민자의 구성도 다양해졌다(Bevelander and Nrstorza, 2014: 5).

그러나 전반적으로 스웨덴에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Guibourg, 2014). 이민자를 덜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1990년대 60% 대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40%대로 떨어졌다. 또한 이민 이슈가 스웨덴 사람들에게서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2014년보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민 이슈가 스웨덴에서는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다.⁹⁾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 행동을 통해서 반이민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사회갈등은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병리적인 사회 현상으로서의 극우 민족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기 보다는 소수의 극우 집단의 정치활동이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스웨덴 민주당이 일부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정치화되면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이슈를 공유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유럽의회 선거를 넘어서 국내 선거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9)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스웨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이민 문제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01년과 2003년에 동일하게 42%이었으나, 2012년 23%, 2013년에는 28%로 2000년대 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Oscarsson & Bergstrom, 2014: 43).

<표 8> 총선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중요도 평가(%)

선거 이슈	대단히 중요	중요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교육과 학교	54.2a	33.2	10.3	1.5	0.8
	54.4b	32.1	10.3	2.0	1.0
	59.5c	29.0	8.8	1.6	1.2
의료보장	51.3	34.1	11.8	1.8	1.0
	49.4	34.0	13.4	2.1	1.1
	54.5	31.4	11.1	2.0	1.0
경제	50.4	37.1	10.4	1.3	0.7
	52.9	33.9	10.6	1.6	1.0
	51.7	33.5	11.6	2.0	1.2
복지	-	-	-	-	-
	40.6	34.6	15.3	2.6	1.4
	50.6	32.7	13.2	2.4	1.1
고용	55.5	33.9	8.6	1.1	0.9
	52.9	35.6	9.2	1.4	1.0
	50.2	36.6	10.4	1.8	0.9
노인 간병	45.2	32.1	16.4	4.2	2.1
	40.2	32.8	19.4	5.1	2.5
	47.1	32.0	15.6	3.6	1.6
이민	24.8	34.3	30.2	7.0	3.7
	25.5	33.1	29.6	7.3	4.4
	33.5	33.0	23.8	6.3	3.4

참고: a는 2006년 총선, b는 2010년 총선, c는 2014년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의미한다.

스웨덴 민주당의 약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민자 비율이 높은 곳에서 스웨덴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는 이민자들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Crouch, 2014; Olsson, 2015). 또한 중요한 점은 2000대 들어서 스웨덴에서 난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90년대보다 결코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난민을 덜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는 비율도 1990년대 초반 60%대에서 2010년대 40%대로 낮아졌다. 반면에 난민을 적게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1990년대 20%대에서 2010년대 30%로 높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민/

난민 이슈와 관련하여 스웨덴 내의 여론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Oscarsson & Bergstrom, 2014: 43).

스웨덴 민주당은 기존 정당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민 문제만을 정당의 주된 이슈로 제기하면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기반으로 지지를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단일 이슈 정당의 출현을 이른바 틈새시장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정치적 동원 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일 이슈 정당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 유럽에 걸쳐서 유럽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운동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

4. 맺음말

스웨덴 극우 민족주의의 대두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인가? 먼저 스웨덴에서 역사적으로 극우주의 운동은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극우주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스웨덴의 극우주의는 스웨덴 정당 체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극우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취약하고, 단지 기성 정당들에 대한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을 스웨덴 민주당이 활용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병리적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웨덴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점차 이민자들의 취업과 빈곤문제가 사회적 인 이슈가 되고 또한 이민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의 통합이 어려워지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민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이민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정치적 의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스웨덴 민주당이 이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극우 민족주의 집단들이 동시

에 벌이고 있는 반EU 운동을 공유하면서, 스웨덴에서도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세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경제적인 차원에서 실업자와 취업자, 노동계급과 비노동계급, 여성과 남성 사이의 정치적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민자 문제가 노동시장과 복지 문제와 연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을 둘러싼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성 정치인들과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면서, 스웨덴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확대될 수 있었다.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스웨덴 민주당은 새로운 기회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스웨덴 민주당의 사례는 극우 민족주의의 정치적 확장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화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변화만을 강조하는 “수요 차원”의 논의와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만들어 가는 정치 전략만을 강조하는 “공급 차원”의 논의가 동시에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스웨덴 민주당의 지지가 이민자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높았다는 사실과 기존 정당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주변적인 이슈를 중요한 이슈로 만든 스웨덴 민주당의 효과적인 동원 전략이 작동했던 점 등은 극우 민족주의의 대두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단일 이슈 정당으로 등장한 스웨덴 민주당은 이민 문제 이외에 경제, 교육, 복지, 조세, 환경, 국방, 가족, 노사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제도권 밖의 정당으로 활동했던 스웨덴 민주당이 주류 제도권 정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기존의 보수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정책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들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 민주당 내 리더십과 정책 능력에 달려 있다. 1990년대 초반 신민주당의 실패 경험은 바로 이러한 단일 이슈 정당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었고, 스웨덴 사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 민주당의 성격 변화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erggren, Lena. 2002. "Swedish Fascism: Why Bother?".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37(3). pp. 395-417.
- Beverlander Pieter and Nahikari Irastorza. 2014. *Catching Up: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of New Immigrants in Sweden*. Migration Policy Institute, ILO.
- Crouch, David. 2014. "The rise of the anti-immigrant Sweden Democrats: 'We don't feel at home anymore, and it's their fault'". *The Guardian*. 2014, 12, 13.
- Erlingsson, Gissur Ó, Kåre Vernby, Richard Öhrvall. 2012. "The single-issue party thesis and the Sweden Democrats". *Acta Politica*. 49(20). pp. 196-216.
- Frederick, Hale. 2012. "Sweden's Welfare State at a Turning Point". *Current History*. 111. pp. 112-117.
- Guibourg, Clara. 2014. "A brief history of immigration in Sweden". *The Guardian*. 2014, 12, 11.
- Hartleb, Florian. 2012. "European Project in Danger? Understanding Precisely the Phenomena 'Euro-scepticism, Populism and Extremism' in Times of Crisis". *Review of European Studies*. 4(5). pp. 45-63.
- Hellström, Anders. 2014. "Feeding the Beast: Nourishing Nativist Appeals in Sweden and Denmark".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5(3). pp. 449-469.
- The local, 2015, "Voters thaw on Sweden Democrats co-operation". *The Local*. May, 5, 2015.
- Hino, Airo. 2007. "The Extreme Right in Western Europe: Success or Failure?". *Acta Politica*. 42(1). pp. 110-114.
- Mariana, Tepfenhart. 2010. "Right-wing extremists in Europe". *Comparative Civilization Review*. 65. pp. 57-72.

- Mudde, Cas. 2007. *Populist radical right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Populist Radical Right: A Pathological Normalcy". *West European Politics*. 33(6). pp. 1167-1186.
- Mulinari, Diana and Anders Neergaard, 2013. "We are Sweden Democrats because we care for others: Exploring racisms in the Swedish extreme right".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1(1). pp. 43-56.
- Olsson, Hanna. 2015. "Därför röstade folk på SD". *Aftonbladet*. 2015, 8, 15.
- Oskarson, Maria and Marie Demker. 2013. "Another kind of class voting: the working-class sympathy for Sweden Democrats" In *Class Politics and the Radical Right*. ed. by Jens Rydgren, London: Routledge.
- Oscarsson, Henrik and Annika Bergstöm eds. 2014. *Swedish Trends, 1986-2013*. SOM Institute, Gothenburg University.
- Rydgren, Jens. 2005. *Från skattemissnöje till etnisk nationalism. Högerpopulism och parlamentarisk högerextremism i Sverige*. Lund: Studentlitteratur.
- _____. 2006. *Tax Populism and Ethnic Nationalism: A Radical Right-wing Populism in Sweden*. Berghahn.
- _____. 2007. "The Sociology of the Radical Righ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pp. 241-262.
- _____. 2010. "Radical Right-wing Populism in Denmark and Sweden: Explaining Party System Change and Stability".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0(1). pp. 57-71.
- Rydgren, J. and Ruth, P. 2011. "Voting for the radical right in Swedish municipalities: Social marginality and ethnic competit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4(3). pp. 202-225.
- _____. 2013. "Contextual Explanations of Radical Right-Wing Support in Sweden: Socioeconomic Marginalization, Group Threat, and the Halo Effect." *Ethnic and Racial Studies*. 36(4). pp. 711-728.

<Abstract>

The Social Bases of Far Right Political Party in Sweden

Shin, Kwang-Yeong^{*}

Analyzing the exit poll of the past three general elections (VALU) in Sweden, this paper explores the social basis of the Sweden Democrats(Sverigedemokraterna, SD) which politically represents the far-right radicalism in Sweden. Sweden has been known as a country in which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exercised hegemony in the 20th century. It also has maintained the stable party system, representing one of the best democratic political system in the world. However, in spite of alienation of the party from existing parties in Riksdag, the Social Democrats has gained popularity in the 2000s and became the third largest party in Riksdag in 2014.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rise of the Sweden Democrats, combining a demand- side explanation which emphasizes the 'far right radicalism as pathological phenomenon' and a supply-side explanation which focuses on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unlike New Democracy, the short lived far right party in the early 1990, the possibility of survival of the Sweden Democrats is very high and there might be the possibility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Sweden Democrats as a single issue party into a mainstream party by diluting radicalism.

Key Words: far right nationalism, Sweden democrats, exit poll(VALU), EU, Sweden

*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성명: 신광영
소속: 중앙대 사회학과
E-mail: kyshin20@gmail.com

논문접수일: 2015.8.2.
수정원고접수일: 2015.8.25.

논문심사완료일: 2015.8.22.
게재확정일: 2015.8.25.